광주·전남 9개 전통시장 특성화 본격 착수

양동-글로벌 명품, 말바우·봉선-문화관광형 등 선정 다음달부터 방문객 위한 콘텐츠 개발·마케팅 교육 등

이르면 내달부터 특색과 개성이 살아있 는 전통시장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에 대한 정책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특성화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 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광 주 말바우시장 등 전국 105개 특성화시장 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을 글로 벌 명품형(지역선도형 포함), 문화관광형, 골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차별화해 맞춤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형에 따라 콘 텐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화상품 발굴, 시장상인 교육 등을 한다. 사업 기간 은 1~3년으로, 시장당 최대 6억~50억원 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전국 105개 특성 화시장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총 9곳이 이 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대상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양동복개상가(양동시장 연합)가 선정, 최 대 3년간 25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

또 지역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해 관광과 쇼핑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육성 하는 문화관광형시장에 말바우시장과 봉 선시장이 각각 선정돼 최대 3년간 18억원 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전 통시장을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골목형시장에 운암시장과 양동수 산시장이 선정돼 최대 5억원 이상을 지원 받고 '1시장 · 1특색'으로 특화상품 개발 등 을 추진한다.

전남 지역에는 골목형시장 사업에 목포 자유시장과 여수진남상가, 여수서시장 주 변 등 3곳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영광매일 시장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6명을 지원하 는 청년상인유성 지원사업에 총 2억원이

이에따라 소비 침체와 콘텐츠 부족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인들은 이 사업이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사업성과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은 이번 사업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그간 의 사업에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규 사업을 개발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별 사업 차별화에 따 른 한계와 지원 종료 후 지자체나 상인회 중심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 다는 평가를 얻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 은 시장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업 마케팅도 요청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 협약시 사람의 에너지 나눔 사업 (w 300,000,000)

한전 '사랑의 에너지 나눔' 3억원

임직원 급여 일부 기부…굿네이버스에 전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6일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모아 진 기금과 회사의 지원금을 더해 마련된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기금 3억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러브펀드 기금 1억5000만원과 러브펀드 기금의 100%를 매칭한 회사 의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합산한 총 3 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은 전기요 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정상적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2003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

재까지 전국의 2만2000여 가구에 약 29 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굿네이버스(www. goodneighbors.kr)와 전국의 한전 사 업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굿네이버스의 심사를 통해 대 상 선정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은 순수 주거용 전기사용 고객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3개월 이 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로서, 가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전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 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국민기업으 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18 러시아 월드컵 기념주화 국내 출시



지난 14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공식 기념주화 출시'행사에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 시아 연예인 안젤리나 다닐로바(왼쪽)와 일리야 벨라코프가 주화를 보여주고 있다. 〈풍산화동양행 제공〉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러시아 월 드컵 공식 기념주화가 국내에 출시됐다.

기념주화 판매권자인 풍산화동양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의 주한 러 시아 대사관에서 알렉산더 티모닌 러시 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주화의 실물을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기념주화는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이 발행한 기념주 화 1차분 가운데 러시아 내에서 판매되 고 남은 잔량의 일부가 해외에 배정된 것

참가국 기념 금화 3종이 포함된 금·은 화 3종 세트(300세트), 러시아 은화 4종 세트(400세트), 러시아 은화 1종(800장) 이 판매된다.

기념주화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협은행,신한은행 전국 지점 및 전국 우 체국 그리고 판매권자인 풍산화동양행 에서 선착순 예약주문을 받는다. 문의 $02 - 3471 - 4586 \cdot 7$.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공정위 칼 빼들자 치킨업계 '화들짝'

BBQ 조사 착수…교촌 가격 인상 철회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들이 결국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공 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격을 올린 BBQ 치킨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치킨 업계의 '눈치 보기'가 확산할 전망이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이달 말로 예 정했던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전격 철 회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교촌치킨은 이날 "최근 고조되고 있 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소비자 불신 으로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본사부터 쇄신을 통해 상생의 길 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AI)가 재발한 상황에서 치킨 업 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업계 전 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상대 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인 BHC가 한시 적으로나마 가격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

연쇄 가격 인상을 촉발한 BBQ치킨과 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때 같은 회사 계열이었던 BBQ와

BHC는 매각 이후 끝없이 법정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BBQ가 가맹사 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비비큐 가맹본부 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했던 내용 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 /연합뉴스

	로또	복권					(제75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ç	33	36		40	42	43	32
	등 위				당첨금(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32,670,500			6
2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8,924,330			44
3	3 5개 숫자일치 4 4개 숫자일치			1,722,130			1,761
4				50,000			88,543
5	3개 성	자일치			į	5,000	1,525,518

청년실업률 악화 속도 OECD 최고

4월 $15\sim24$ 세 실업률 11.2% \cdots 상승폭 2위 국가의 8배

올들어 4월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 장 많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이 전년 말보다 악화 한 국가는 한국 등 5개국뿐이었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

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 →7.1%), 독일(6.6→6.8%), 일본(4.8→5. 0%) 뿐이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 폭은 이들 국가 중 단연 최고로, 2위 국가의 8배를 넘 어서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같은 기간 모두 청년 층 실업률이 개선됐다. OECD 회원국 평

균적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에서 12.1%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의 청년층 실업률은 18. 1%에서 16.7%로 1.4%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10.0%에서 9.4%로 0.6%포인트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청년층 실업률이 떨어진 국가는 이탈리아 (-5.2%포인트), 아일랜드(-3.9%포인트), 스페인(-3.5%포인트), 포르투갈(-2.5%포 인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주를 이뤘다. 프 랑스와 캐나다는 각각 1.8%포인트와 0. 9%포인트씩 청년층 실업률이 하락했다.





